

기출 분석, 왜 해야 할까?

수능 시험의 형식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수능 시험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본질적인 학습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서출판 홀수의 기출 분석 시리즈 를 활용해
체계적인 기출 분석으로 평가원의 시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기출 분석을 하면

- ① 수능 국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② 평가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평가원의 질문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③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들의 실제적 의미를 익힐 수 있습니다.
- ④ 정답을 선택할 때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⑤ 문제를 틀리는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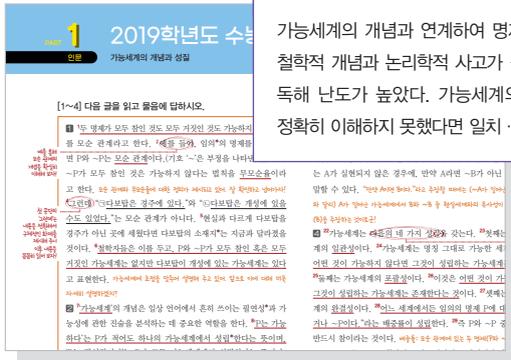
시즌 2

4월~5월

'홀수 옛 기출 분석서'로 평가원의 핵심 출제 요소를 폭넓게 학습

▶ **박광일의 VIEW POINT**

가능세계의 개념과 연계하여 명제 간의 관계를 다룬 지문으로, 철학적 개념과 논리학적 사고가 결합된 이해를 요구하여 지문의 독해 난도가 높았다. 가능세계의 특성과 명제의 성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홀수 옛 기출 분석서 구성

-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평가원 필수 옛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각 지문을 풀어 보아야 하는 이유, 지문과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홀수 옛 기출 분석서 활용법

- 시즌 1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옛 기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 평가원에서 반복적으로 묻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평가원의 관점을 체화합니다.

시즌 3

6월~8월

'홀수 기출 분석서' 2회독으로 취약 지문 영역 파악 및 집중 보완
- '홀수 옛 기출 분석서'도 취약 영역 강화에 활용 가능

취약 지문 영역 순위	독서	문학
1순위	과학·기술	고전산문
2순위	주제 복합	갈래 복합
3순위	사회	고전시가

(예시) 독서 2회독: '과학·기술'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 '주제 복합'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 '사회'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홀수 기출 분석서 2회독 방법

- '홀수 약점 CHECK 모의고사'의 약점 CHECK 분석표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지문 영역을 파악하여 집중 학습합니다.
- 독서에서는 지문의 구조도를 그리며 정보를 체계화하는 훈련을, 문학에서는 영역별 핵심 출제 요소 및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훈련을 권장합니다.

시즌 4

9월~11월

'홀수 기출 분석서' 3회독으로 취약 문제 유형 파악 및 집중 보완
- '홀수 옛 기출 분석서'도 취약 유형 강화에 활용 가능

취약 문제 유형 순위	독서	문학
1순위	구체적 상황에 적용	작품 내용 이해
2순위	세부 내용 추론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3순위	세부 정보 파악	표현상, 서술상 특징 파악

(예시) 독서 3회독: 전 지문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 문제만 기출 분석 → 전 지문의 '세부 내용 추론' 문제만 기출 분석 → 전 지문의 '세부 정보 파악' 문제만 기출 분석

홀수 기출 분석서 3회독 방법

- '홀수 약점 CHECK 모의고사'의 약점 CHECK 분석표를 토대로 수능 전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집중 학습합니다.
- 수능 직전에는 최근 3~5개년 수능 및 올해 시행된 6월·9월 모의평가를 다시 분석합니다.

짝수 노트 사용 설명서

무턱대고 기출 분석서를 n회독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흠수의 기출 분석 시리즈 를 활용해 기출 분석을 체계적으로 반복해 보세요.

각 회독마다 틀린 문제, 혹은 맞았지만 헛갈렸거나 판단이 어려웠던 문항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짝수 노트'** 에 기록해 보세요.

짝수 노트를 활용해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반복되는 실수나 문제 상황을 없애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짝수 노트를 활용하면

- ❶ 스스로 취약점을 진단하여 수능 국어 학습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❷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유형화하여 오답을 줄이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❸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두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❹ 기출 분석서를 n회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줄고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지문과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잘못·실수 유형 및 해결 전략(p.05)과 짝수 노트 작성 예시(p.09)를 함께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여 나만의 짝수 노트를 채워 나가 보세요.

1 지문을 읽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유형

• 독서 •

대표적인 잘못	해결 전략
<p>1. 핵심 키워드를 놓쳤다.</p> <p>지문을 급하게 읽다 보면 특정 원리나 개념의 적용 범위('모든', '-만', '뿐', '-들'), 필수 조건('반드시'), 비교·비례 요소('-와 달리', '-르수록')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들을 놓칠 수 있어. 이런 요소들은 선지에서 함정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p>	<p>개념의 범위나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들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문을 읽어 가자.</p>
<p>2. 어휘력이 부족했다.</p> <p>독서 지문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면 의미를 알 것이라고 생각 되는 어휘들이 활용돼. 독서 지문이 친숙하지 못해 이러한 어휘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문의 정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다가 그릇된 이해를 할 수 있어.</p>	<p>많은 독서 지문을 접해 보고,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풀어 보자.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한데 모아 적어 두고 그 뜻을 반복적으로 읽어 보자.</p>
<p>3. 정보와 정보를 잇는 맥락을 놓쳤다.</p> <p>특정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를 이어지는 설명과 연결 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문을 토막토막 끊어서만 이해하면, 서로 다른 문단에 있는 정보 간의 관계를 묻는 추론형 문제나 지문의 정보를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를 풀 때 실수할 수 있어.</p>	<p>사전 정보에서 주어진 설명과 이어지는 설명을 연결하면서 읽는 노력을 하자. 특히 앞 문단에서 제시된 설명이 뒤 문단과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는지 파악하자.</p>
<p>4. 꼭 파악해야 할 세부 정보를 놓쳤다.</p> <p>주요 정보에 붙은 부가적인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부가 정보는 일치·불일치 문제의 한 선지 정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서, 관련 정보를 놓치게 되면 선지 판단을 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p>	<p>지문의 큰 줄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짧고 부가적인 설명이라도 반드시 표시 해서 그 설명이 어디에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p>

• 문학 •

대표적인 잘못	해결 전략
<p>1.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p> <p>화자나 서술자, 인물이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해. 평가원은 주요 인물이 아닌 사소한 인물의 행동에 대해 묻거나, 사실 관계를 아주 조금만 틀어서 헛갈리기 쉬운 문제를 만들기도 하니 주의해야 해.</p>	<p>지문을 읽을 때, 화자나 서술자, 핵심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되, 보조적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꼭 체크는 해 두자.</p>
<p>2. 배경 지식이 부족했다.</p> <p>문학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3 수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학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해. 특히 최근에는 잘 쓰이지 않는 고전 문학의 표현이나 현대인이 아닌 작자층의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이야.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화자의 태도나 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p>	<p>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뜻을 찾아보고 용례도 읽어 보자. 각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아 두자.</p>
<p>3. 문학적 약속을 간과했다.</p> <p>기출 작품에서는 하나의 약속처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시어들을 발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고향', '하늘', '별', '어머니' 등은 시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 화자가 '고향이 그리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도 고향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한다면, '그리지 않다.'는 반어적 표현인 거지. 문학적 약속을 잊고 표현에만 주목하면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문학적 약속은 작품 이해의 단서로 활용하도록 하자.</p>	<p>기출 분석을 통해 문학적 약속을 내면 화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일 때마다 정리해 두자.</p>
<p>4. 연계의 함정에 빠졌다.</p> <p>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일한 작품이라도 연계 교재의 <보기>에 제시된 관점과 수능의 <보기>에 제시된 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따라서 연계 교재에 제시된 관점을 수능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오답을 고를 수 있어. 또한 연계 교재에서 공부했던 작품이 그대로 출제되면 지문을 대강 읽다가 막상 문제의 난도가 높으면 당황하면서 지문을 다시 읽기도 하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p>	<p>연계 교재에서 이미 공부한 작품이 출제되어도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관점을 정확히 읽고 문제를 풀자.</p>

2 문제를 읽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유형

대표적인 잘못	해결 전략
<p>1. 발문에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반대로 읽었다.</p> <p>분명히 발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적절한 것을 답으로 고른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야. 발문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선부르게 오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p>	<p>발문에서 '않은'이 들어간 부분을 자꾸 놓친다면, 해당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 등으로 표시하자.</p>
<p>2. 발문에서, 주어진 전제를 놓쳤다.</p> <p>발문은 특정한 사례나 견해를 사고의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하기도 해. 이를 놓친 상태로 선지를 해석하면, 각 선지의 바탕이 되는 '관점, 견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오답을 선택하게 돼.</p>	<p>발문에서 어떤 조건과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자.</p>
<p>3. 선지에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했다.</p> <p>매력적인 오답은 부분적으로 지문이나 <보기>와 일치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커. 이렇듯 부분적인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선불리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오답을 선택하게 될 수 있어.</p>	<p>선지를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면서, 지문, <보기>와 비교하자.</p>
<p>4. 선지에서, 말바꾸기된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p> <p>선지는 지문이나 <보기>의 표현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아. 선지와 지문의 표현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두 내용의 맥락이 서로 통한다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해.</p>	<p>선지와 지문의 표현이 대응되는지만 보지 말고, 지문의 맥락과 유사한지 확인하자.</p>
<p>5. 지문의 정보를 <보기>와 대응하지 못했다.</p> <p><보기>는 지문 전체, 혹은 지문의 특정 요소와 연결되므로, 지문에 제시된 개념이나 표현을 <보기>의 정보에 적용하여 이해해야 해. 두 정보를 대응하지 못하면, 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어.</p>	<p><보기>를 읽을 때, <보기>에 제시된 상황이나 표현이 지문에 제시된 설명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자.</p>
<p>6. 지문-<보기>-선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았다.</p> <p><보기>에는 지문의 정보와 반대되거나, 지문에 없는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 있어. 따라서 선지와 <보기>가 서로 대응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문과 과도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선지-<보기>의 관계, 혹은 선지-지문의 관계만 고려하여 적절성을 판단하면 오답을 고를 수 있어.</p>	<p>지문과 선지, <보기>와 선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선지가 지문과 <보기> 모두에 부합하는 설명인지 확인하자.</p>

3 대표적인 태도의 실수 유형

대표적인 실수	해결 전략
<p>1. '왜?'라는 의문에 매몰됐다.</p> <p>평가원 기출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지문을 이해하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해. 그런데 지문에서 제시한 정보나 선지의 특정 표현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생각에 매몰될 수 있어. '왜' 이러한 깊이의 내용을 다루는지, '왜' 비슷한 다른 표현을 두고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그만큼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들어서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p>	<p>무의미한 의문에 매몰되지 말고,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선지를 시간 안에 빠르게 판단하는 것에 집중하자.</p>
<p>2. 불필요한 배경지식을 적용했다.</p> <p>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제와 관련된 지문이 제시되면, 무심코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이해하려 할 수 있어.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지문이나 문항을 해석하려 하면, 지문에 주어진 정보와 어긋나는 해석을 하게 돼서 오답을 고르게 될 가능성이 발생해.</p>	<p>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되, 지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하자.</p>
<p>3. 한 지문이나 문제에 끈질기게 매달렸다.</p> <p>이따금 유난히 읽히지 않는 지문이나 잘 풀리지 않는 문제와 마주하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이때 해당 지문이나 선지의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불붙고만 있으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들게 돼.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풀 수 있었을 문제들도 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p>	<p>문제 풀이의 순서를 바꾸거나, 특정 선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더 적절'하거나 '더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p>
<p>4.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 선지만 읽고 답을 골랐다.</p> <p>수능은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하는 시험이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해. 시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급하게 풀면서 선지 다섯 개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정답인 것 같은 선지를 찾자마자 정답으로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도 해. 하지만 수능 국어에서는 지문에 쓰인 내용을 인용해 그럴듯한 오답을 구성해서 정답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리해서 시간을 줄일 게 아니라, 평소 기출 분석을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자신만의 시간 관리 전략을 다듬어 가야 해.</p>	<p>무리하게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이지 말고, 꾸준한 기출 분석을 통해 강점 영역과 약점 영역 모두에서 선지를 꼼꼼히 보며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 보자.</p>

• 짝수 노트 작성 예시 •

영역	출수 교재 페이지	기출연월	세부 영역	지문 제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독서 <input type="checkbox"/> 문학	기출 분석서 문제책 p.64	2025학년도 6평	사회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적 경영

1회독

날짜 2025. 1. 23.

틀린 문제 수 2 / 4

문제 번호	문제 유형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 오답을 선택한 이유	이것만은 꼭!
3번	세부 내용 추론	지문에서 스톡옵션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권리 행사 시점을 경영자가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답을 고르기 어려웠다.	부가 정보도 문맥을 통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4번	구체적 상황에 적용	<보기>에 제시된 A와 B의 주장이 지문의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 중 무엇에 대응되는지 판단하지 못했다.	<보기>를 그냥 읽지 말고, 지문에 제시된 핵심 화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해 가며 읽자.

2회독

날짜 2025. 8. 3.

틀린 문제 수 1 / 4

문제 번호	문제 유형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 오답을 선택한 이유	이것만은 꼭!
4번	구체적 상황에 적용	X사의 주주들이 수평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는 말(㉠번)이, 공동체적 경영에서 모든 주주가 의사 결정권을 균등하게 행사한다는 말(지문)과 대응되는 의미인지 몰랐다.	같은 내용도 지문과 선지에서 각기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눈으로만 풀지 말고 이해하면서 풀자.

3회독

날짜 2025. 10. 7.

틀린 문제 수 0 / 4

문제 번호	문제 유형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 오답을 선택한 이유	이것만은 꼭!
4번	구체적 상황에 적용	문제를 틀리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지문과 <보기>의 정보를 대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문과 <보기>의 사례, 주장을 비교하여 공통점·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만 모아서 반복적으로 풀어 보자.

• 짝수 노트 작성 예시 •

영역	출수 교재 페이지	기출연월	세부 영역	지문 제목
<input type="checkbox"/> 독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학	기출 분석서 문제책 p.108	2025학년도 6평	고전산문	「이대봉전」

1회독

날짜 2024. 12. 30.

틀린 문제 수 2 / 4

문제 번호	문제 유형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 오답을 선택한 이유	이것만은 꼭!
3번	소재의 의미 및 기능 파악	여러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도 자주 바뀌어서 헷갈렸다. 그러다 보니 ㉔, ㉖에 제시된 내용과 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며 지문을 읽고, 인물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은 정리해 두자.
4번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선지에 언급된 '천우신조(㉔번)', '당위성(㉓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답을 고르기 어려웠다.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도어야 하는 성질.

2회독

날짜 2025. 7. 8.

틀린 문제 수 1 / 4

문제 번호	문제 유형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 오답을 선택한 이유	이것만은 꼭!
4번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에서 분명히 충신인 주인공이 사적 목표도 추구한다고 설명했는데, 충신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배경지식이 갑자기 떠올라서 ㉖번을 틀렸다고 생각했다.	배경지식이 아닌 <보기>의 정보를 기준으로 정답을 고르자.

3회독

날짜 2025. 9. 30.

틀린 문제 수 1 / 4

문제 번호	문제 유형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 오답을 선택한 이유	이것만은 꼭!
2번	인물의 특징 및 심리 파악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인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풀었다.	익숙한 작품이라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지문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자.

